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Read) · 기도(Pray) · 감사(Give Thanks)"

연중 제11주일

2021년 6월 13일(제485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사이트: www.tvkcc.org

주일 / 평일미사: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온라인 미사: 유튜브에서 'TVKCC mass' 검색

주일학교	온라인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온라인
	성령기도회: 온라인
	올드레아: 온라인
	향심 기도회: 온라인
성시간	일시 중단

미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평일미사	화,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Temporarily suspended
	Youth Mass	Temporarily suspended
고해성사	교중미사 전: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0분	
유아세례	일시 중단	

해설_김지용(예로니모) 제1독서_김미정(안나) 제2독서_김미정(안나)

입당송 | 시편 27(26),7,9 참조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 예제 17,22-24 Ezekiel 17:22-24

화답송 | 시편 92(91),2-3,13-14,15-16(◎ 2ㄱ 참조)

Psalms 92:2-3, 13-14, 15-16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Lord,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you.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to sing praise to your name, Most High, To proclaim your kindness at dawn and your faithfulness throughout the night.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The just one shall flourish like the palm tree, like a cedar of Lebanon shall he grow. They that are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shall flourish in the courts of our God.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 They shall bear fruit even in old age; vigorous and sturdy shall they be, Declaring how just is the LORD, my rock, in whom there is no wrong. ◎

제2독서 | 2코린 5,6-10 Second Corinthians 5:6-10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Alleluia.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The seed is the word of God, Christ is the sower. All who come to him will live forever. ◎

복음 | 마르 4,26-34 Mark 4:26-34

영성체송 | 시편 27(26),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안나, 윤정의 알폰소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를 땅에 뿌려져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싹은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나라도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조바심내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듯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생명력을 신뢰하며 긴 호흡으로 그 완성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만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삶의 역경과 고난, 유혹의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를 내적인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좁쌀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땅에 뿌려져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겨자씨의 왜소함과 그 겨자씨가 성장한 이후의 풍성함이 대조되어 놀라움을 자아내듯, 거스를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역동성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엄청난 성장과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 시작이 비록 작은 겨자씨처럼 우리의 눈에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다스림은 결국 놀라운 위력을 드러낸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신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그래

서 하느님께 희망을 둘 때, 지금 당장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신앙도 하느님의 다스림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여 총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며 하느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신앙에 회의를 품기도 하고, 결국에는 냉담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여유있게 지켜보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변화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듯이 하느님의 다스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은 겨자씨가 놀랍게 성장하듯, 장차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그 큰 위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복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께 신뢰와 희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아멘

유승록라우렌시오 신부 | 등촌1동성당 주임 겸 17지구장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KOREAN B.B.Q 영동 순두부  7268 San Ramon Rd. Dublin, CA 94568 925-551-082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 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p>	<p>혁신적인 항노화 제품과 훌륭한 사업기회  민주란 아우레아 253-468-3030 jooranmin@gmail.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신세계 여망사 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5분 묵상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받은 믿음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씨앗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 사는 케이트 오그는 임신을 한 지 7개월 만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조속아인데다가 쌍둥이라 아이들의 상태가 염려가 되었는데, 딸인 에이미는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에 무리가 없었으나 아들인 제이미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제이미를 의료진은 태어나자마자 20분간이나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진단을 내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케이트 씨와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케이트 씨는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잠시 안아보게 해달라고 했고 의사는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이미를 품에 안은 케이트 씨는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여주었고, 입을 맞추고 젖을 물리며 2시간 동안이나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고하려는 순간 기적처럼 제이미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의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놀라워했지만, 현재 제이미

는 건강히 자라 다른 아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혼(하느님의 숨결)은 깨어나고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또 참 신앙의 길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느끼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성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큰 나무로 우리 이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2021년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	말씀	기도	감사
하느님 말씀에 가까이 머물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어지는 상황들을 말씀에 비추어 식별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갑시다.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한마디를 건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간: 2020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까지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성 요셉의 해
PROCLAMATION OF THE YEAR OF ST. JOSEPH
기간: 2020년 12월 8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500 Dublin Blvd. #206
Dublin CA 9456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책성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

SUE CHO
CELL: 530-220-2848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650-305-5181



■ 실내 미사 전면 재개 안내

- 주 정부와 교구의 Covid-19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6월 15일부터 실내 미사가 전면 허용됩니다.
- 우리 공동체는 센터의 법정 정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가 되는 실내 인원수가 큰 의미 없는 수준으로 실내 미사 전면 재개는 St. Elizabeth 성당 첫 미사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Pandemic 이후 시행되어온 주일미사 참례 의무 관련 조치는 8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즉, 8월 15일부터는 주일미사 참례 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 미사 전면 재개와 관련된 교구의 세부 시행지침은 이메일로 공지하겠습니다

■ St. Elizabeth 성당 첫 미사 예정

- 우리의 오랜 염원인 St. Elizabeth 성당에서의 첫 미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 계획과 CCOP의 상황에 변수가 없는 한 첫 미사는 7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주요 전례 일정

- 6월 24일(목):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 6월 29일(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 올드레야 월레모임 공지

- 일시: 6월 19일(토), 오전 11시 ~ 12시
- 장소: 온라인 (Zoom 링크는 차후 이메일과 카톡으로 알려드립니다.)
- 꾸르실리스따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전출 가정

- 김순삼 베네딕토, 김영란 마리아 가정

■ 6월 반모임 일정

루 카 3	6/19(토) 4:00 PM	온라인	858-334-8454
4	6/26(토) 8:00 PM	온라인	925-551-1233
마태오 1	6/18(금) 7:00 PM	온라인	408-318-7588
3	6/26(토) 7:00 PM	온라인	224-707-0119
4	6/16(수) 8:30 PM	온라인	412-273-2418
5	6/26(토) 8:00 PM	온라인	408-966-5496

■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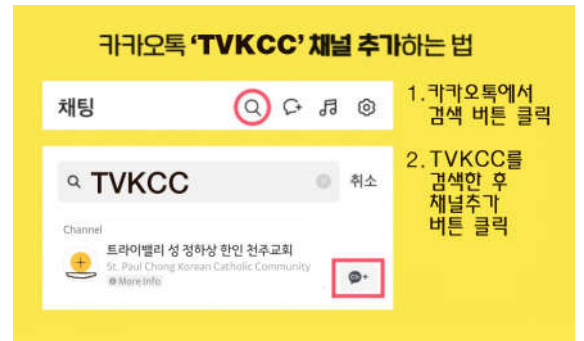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liturg@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prayer_requests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1,530	-	-	\$2,590	\$30	\$30	\$4,18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고은경(6), 남석훈(6), 이주일(1-6), 이주하(1-6), 이희열(6,7), 장찬(6), 조윤나(4-6), 조현대(6)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남석훈(6), 조현대(6)
- **Bishop's Appeal**
남석훈(6), 조현대(6)
- **성전건축 헌금(Building Fund)**
강호중, 고은경, 남석훈
- **감사헌금**
이원숙



복음화 지향: 혼인의 아름다움 / The Beauty of Marriage



혼인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으로 포용과 신의와 인내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et us pray for young people who are preparing for marriage with the support of a Christian community: may they grow in love, with generosity, faithfulness and patience.

■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니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니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니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 평일(화, 목, 토): 오전 9시 - 9시 20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